참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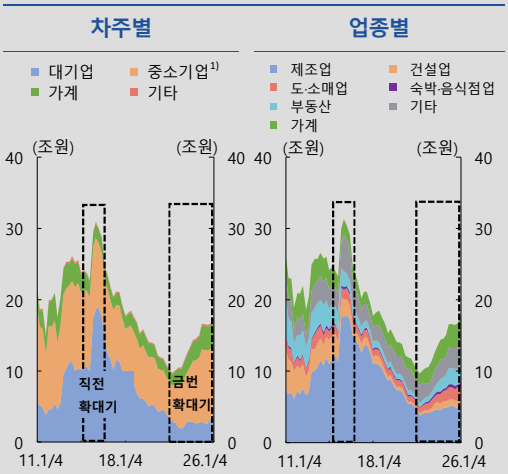
국내은행 부실여신의 증가 배경 및 정리 현황[145]

국내은행 부실여신은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2022년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최근 시장금리 상승, 업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에 국내은행은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중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부실여신 정리에 힘쓰고 있다. 이하에서는 시장금리 및 환율 상승, 중동사태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은행 부실여신의 증가 배경과 정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부실여신 증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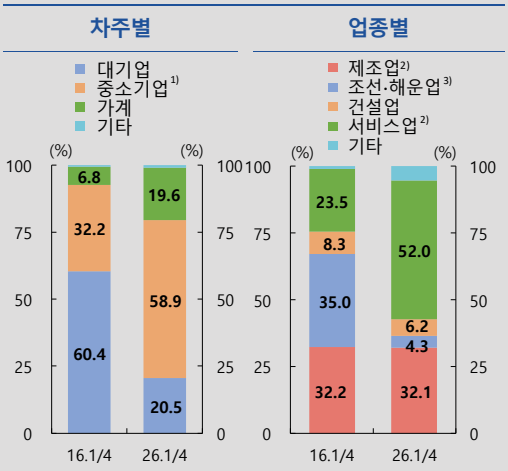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부실여신(이하 고정이하여신 기준) 규모는 2022년 9월말 저점(9.7조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 3월말 17.7조원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 발생 및 정리가 일단락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부실여신의 장기 추이를 보면, 2015~16년중(직전 확대기)에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146] 및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하였다. 반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금번 확대기)는 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 부문의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부실여신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 수도 크게 늘어난[147] 모습이다(참고 5-1, 5-2).

참고 5-1. 차주 및 업종별 국내은행 부실여신 추이



주: 1) 개인사업자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참고 5-2. 부실 확대기 중 부실여신의 구성 비교



주: 1) 개인사업자 포함
2) 조선·해운업 제외
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및 수상운송업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45 본고는 박성경 · 이윤진(은행분석팀)이 작성, 정연수(금융기관분석부장) · 김경섭(은행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146 세계 교역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조선 수주와 선박가격, 해운 물동량 및 운임이 하락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호황기 중 선박·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한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등 고위험 사업에서 사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과 이자 상환 여력이 약화되었다.
147 각 부실여신 확대기 중 부실여신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 3월말 및 2026년 3월말을 비교해 보면 금번 확대기에는 직전 확대기에 비해 대기업 연체(1개월 연체 기준) 차주수는 감소(118개 → 68개)한 반면 중소기업은 크게 증가(22,339개 → 58,372개)하는 모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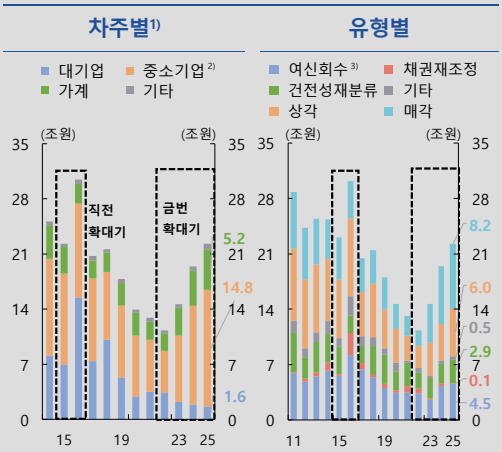
부실여신 정리 현황

부실여신 누적[148]은 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높여 수익성을 저하시키고[149] 신규 대출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은행은 여신회수, 매·상각, 채권재조정 등을 통한 부실 정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부실여신 정리 실적을 차주별로 보면, 부실여신 증가 추이와 마찬가지로 직전 확대기에는 부실이 많았던 대기업 여신의 정리 규모가 컸던 반면 금번 확대기에는 중소기업 여신의 정리 규모가 늘어났다. 2025년중 중소기업 여신 정리 규모가 14.8조원으로 전체 정리 규모(22.3조원)의 66.4%에 해당하였으며, 대기업 및 가계 여신의 정리 규모는 1.6조원 및 5.2조원으로 각각 7.2% 및 23.3%를 차지하였다.

정리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직전 확대기에는 채권단 주도의 기업정상화 과정에서 채권재조정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상각과 여신회수를 통한 자체 정리 규모도 큰 모습이었다. 이에 비해, 금번 확대기에는 2023년 이후 매각 규모가 상각 규모를 넘어서는 등 매각 방식을 통한 부실여신 정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중 매각을 통한 정리 규모는 8.2조원으로 전체 정리 규모의 36.7%에 해당하였으며, 여신회수 및 상각은 4.5조원 및 6.0조원으로 각각 20.4% 및 27.1%를 차지하였다(참고 5-3).

참고 5-3. 국내은행의 부실여신 정리 현황



주: 1) 데이터 수집 가능 시점인 2014년 이후로 분석
2) 개인사업자 포함
3) 자진변제, 담보물 처분 및 제3자(보증인 포함) 대위변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부실여신 매각 방식의 확대 배경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2022년중 1.9조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 2025년중 8.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① 빠른 속도로 확대된 부실여신의 신속한 정리

최근 부실여신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된 데다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분포되어 있어 가시적인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건전성 개선

148 ESRB(2017)는 부실여신(NPL)이 신규 대출을 위축시키고 은행 자산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분석하였으며, EBRD(2016)는 높은 NPL이 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높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이 부실차주에 대한 여신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배분을 왜곡한다고 평가하였다.

149 IMF(2017) 분석방식에 따라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전분기)과 총자산수익률(ROA) 및 대출증가율(전분기말 대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부실여신이 누적될수록 수익성 및 성장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따른 은행의 ROA 및 대출증가율 추정 결과[1)2)3)]

	ROA	대출증가율
고정이하여신비율	-0.091**	-0.868***

주: 1) 2015년 3/4분기~2025년 4/4분기중 20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
2) 통제변수로 자본비율, 총자산, 영업비용/영업수익, 비이자수익비율, 예대율, GDP성장률, 콜금리를 사용. 대출증가율은 ROA를 추가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은행권은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자체 여신회수 및 채권재조정보다는 매각 방식이 정리 속도 및 부실여신 관리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일괄매각을 통한 부실여신의 효율적 정리

부실여신이 이질적인 소액·다건의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주와의 개별 협상을 통한 정리보다는 부실채권의 일괄 매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설정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비담보부 부실채권 정리에 주로 활용되는 상각[150]보다 NPL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5-4).

참고 5-4.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담보현황[1)]

(%)

	담 보	보 증	신 용[2)]
대 기 업	36.2	3.2	60.6
중소기업	67.0	13.6	19.4

주: 1) 2026년 3월말 기준
2) 법인지급보증, 연대보증, 순수신용 등에 의한 신용대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③ NPL 전문 투자사의 참여 확대

부실여신 매각 시장(NPL 매각 시장)은 2015년 이후 매물이 축소됨에 따라 캐피탈사 및 자산운용사들의 입찰 참여가 부진한 가운데, 2020년 이후 NPL 전문 투자사들이 신규 진입하면서 소수 기관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151]하였다. 부실여신 투자는 여신의 매입부터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한 회수에 이르기까지 투자수익을 획득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채권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152]이 가능하며 장기간의 투자·회수 사이클을 감내할 여력을 갖춘 전문 투자사가 주된 매수 주체로 참여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은행권 매각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최근 부실채권 매각의 주요 특징

① 개인사업자 등 개인차주 비중 확대

국내은행이 매각[153]한 부실채권(이하 미상각원금잔액 기준)의 차주별 구성을 보면, 과거 매각 규모가 컸던 2015년중에는 개인차주(개인사업자 포함)가 22.8%, 법인차주(중소법인 포함)는 77.2%로 취약업종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여파로 법인 부실채권의 매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2025년중에는 개인 및 법인 차주 비중이 각각 41.5% 및 58.5%를 기록하여 내수부진과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차주의 부실채권 매각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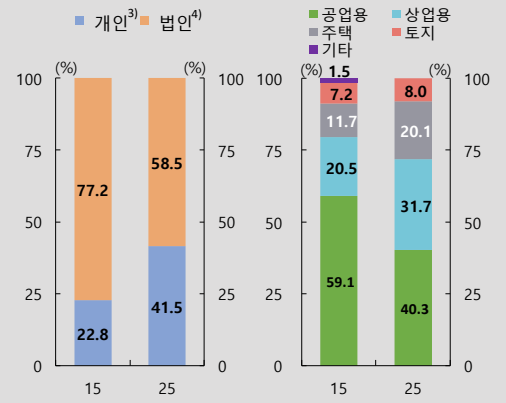
② 상업용 및 주거용 자산 비중 확대

은행권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의 담보별 구성도 변화하였다. 2015년 매각채권 중 공업용 자산 담보 비중이 59.1%에 달하였으나 2025년에는 40.3%로 축소된 반면, 상업용 및 주거용 자산 비중은

150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법으로 국내은행은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을 상각처리 한다.
151 현재 연합자산관리(UAMCO), 대신F&I, 하나F&I, 키움F&I, 우리금융F&I의 5개사가 영업중이다.
152 2025년중 5개 NPL 전문 투자사의 공모채 발행액은 3.2조원으로 전년도 발행액(2.8조원)보다 13.2% 확대되었다. 또한 대신F&I는 2025년 5월 2,500억원, 하나F&I는 2023년 12월 1,500억원, 우리금융F&I는 2024년 5월 1,200억원, 키움F&I는 2021~2025년중 매년 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153 부실여신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공시하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기준으로, 해당 신청서에 첨부된 유동화자산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부실여신 투자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ABS 등에 투자하고, 동 증권의 원리금 또는 처분손익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2015년 20.5% 및 11.7%에서 2025년에는 31.7% 및 20.1%로 확대되었다(참고 5-5).

참고 5-5. 은행권 매각 부실채권 구성[1]



주: 1) 해당연도 중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 기준
2) 부동산 담보 기준
3) 개인사업자 포함
4) 중소법인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③ 부실이력이 짧은 담보부 여신 위주로 매각

매각 부실채권 중 담보부 여신이 2025년중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담보부 채권 중심으로 NPL 시장이 형성되었다. 또한 최초 취급일이 3년 이내인 부실채권이 매각 채권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실이력이 짧고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치가 높은 부실채권이 NPL 시장에서 보다 선호되며 원활히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가 및 시사점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여신 관리는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154]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실여신 정리 방법의 하나인 매각 방식은 은행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NPL 전문 투자회사로 적절히 이전함으로써 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공급 활성화 등 은행의 신용중개 여력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은행권 부실여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실여신의 담보가치 하락,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해 NPL 전문 투자회사의 수익성[155] 및 재무건전성[156]이 저하될 경우 부실여신에 대한 매입 수요가 축소되면서 은행의 부실자산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은행이 매각하고자 하는 부실채권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매입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실채권 매입가율[157]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은행권은 부실여신 추이 및 NPL 매각 시장의 수급 상황에 유의하면서 부실여신 정리 방식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54 2025년중 부실여신 매·상각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5년말 1.06%로 실제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0.57%)을 약 0.5%포인트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55 부동산의 법원경매 매각률(매각건수/경매건수)은 2021년말 36.0%에서 2025년말 22.7%로 하락하였으며, 낙찰가율(매각가/감정가)은 같은 기간 중 78.8%에서 63.7%로 하락하였다.
156 NPL 전문 투자사(5개사)의 평균 레버리지 배율은 2022년말 2.6배에서 2025년말 4.4배까지 확대되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평가 시 적정 레버리지 배율을 통상 5배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157 부실채권의 대출원금 대비 매입가격(은행의 매각가격)으로 NPL 투자자의 매입 수요가 높을 경우 높게 책정되고 수요가 낮을 경우 하락한다. 부실채권 매입가율(추정치)은 2023년 87.3% → 2024년 79.3% → 2025년 70.7%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부실채권 매입 수요가 제약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은행지주회사 산하 일부 투자회사의 경우 지주사 차원의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였다.